

##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 칼빈을 중심으로\*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pentance in  
Calvin's Soteriology

심명석 박사 (Shim, Myung-Suk)

평택대학교 강사 (조직신학)



칼빈의 회개론은 이신칭의와 더불어 그의 구원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내적인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회개가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다. 칼빈의 회개론은 회개가 단지 구원의 서정의 하나로서의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강화하고, 구원의 서정의 객관적 측면을 실제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신칭의 만이 복음이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는 죄 사함도 복음이기에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요건이며,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실한 표가 되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선포적이지도, 법정적이지도, 인간의 사색의 결과도 아니다. 또 그것은 단지 주관적이거나 혹 단지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율법주의적이거나 신인협동의 결과도 아니다. 회개는 인간의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주도된 것이고, 하

\* 논문 접수일: 2008. 9. 7.

개재 확정일: 2009. 3. 7.

나님의 권능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인간은 회개의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의도 공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이다.

**주제어:** 회개, 회심, 고해성사, 참회, 죄 고백, 선행

## 1. 서 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 시키기 위함이셨다(눅 5:32).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와 중심적인 메시지는 회개였고(마 3:8, 4:17; 막 6:12; 눅 17:3), 주님과 사도들에게 있어 회개는 죄 용서를 받게 하기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다(행 2:38, 3:19; 고후 7:9, 10).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역시 회개는 그들의 중심 메시지였다(사 55:7; 렘 3:12, 22, 4:1; 11:7, 14:1; 요엘서 2:12; 슥 1:3, 4; 말 3:7). 뿐만 아니라, 회개는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 종교 개혁의 중요한 주제이며 개혁의 동인(動因)이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 회개는, 죄인들의 중생과 성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생겨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특징이었다. 또한 회개는 교회가 태동한 이래로 설교 강단의 주요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회개는 단지 하나의 운동이며 특별한 신앙 행위의 유형 정도로만 취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독립된 하나의 요소가 아닌 성화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성화에 포함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피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고에서 회개를 성화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하나의 운동으로 혹은 단지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분명하게 구원의 요소이며, 동시에 성화와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진 하나의 구원사건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1.1. ‘회개’라는 용어에 대한 개혁자들의 이해

중세의 스콜라주의에서는 *convertere*와 *conversio*를 종교적 입장뿐 아니라, 세속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도 사용했다. 그들에게 있어 회개란 오직 하나님에 의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중세의 주석가들은 회개에서 빈번하게 반(半)-펠라기안주의처럼 ‘돕는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스콜라 주의가 제시하는 회개의 주관적 조건들은 ‘바른 의지,’ ‘은혜에 대한 신뢰,’ ‘겸손’이었고, 객관적 조건들은 ‘어떤 진리에 대한 믿음,’ ‘도덕적 규범에 대한 준수,’ ‘성례의 수용과 교회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회개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보다 강조되었고, 사법적이고 교회적 측면이 영적이고 성경적인 요소들보다 훨씬 더 강조되었다.<sup>1</sup>

중세의 회개 개념과는 반대로, 칼빈은 영적이고 성경적인 차원에서 회개의 개념을 재정의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신약성경의 ‘μετάνοια’ 개념에서 성례전의 3요소인 통회(*contrition*)와 죄 고백(*confession*)과 만족(*satisfaction*)을 찾으려 했던 스콜라 학자들의 의견에 반대하여, μετάνοια가 ‘참회(*paenitentia*)’보다는 ‘회개(*resipiscentia*)’로 번역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에라스무스를 따라 로마교회의 고해성사의 개념 대신에 ‘μετάνοια’의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내적인 의미를 강조했다.<sup>2</sup> 1516년에 출판된 신약성

<sup>1</sup>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 by D. Foxgrover and W. Provo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244.

<sup>2</sup> Erasmus, Op 6, 773 F (2 Cor. 11). 에라스무스는 μετανοείτε가 로마교회에 의해 성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어거스틴의 입장과 어긋난 것이며, μετανοείτε는 죄에 대한 징벌보다는 마음을 바꾸는 것(recovering one's senses)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Novum Testamentum* (1519), Matthew 3:2 and 4:17, and Mark 1:15.

경의 주석판에서, 에라스무스는 Vulgate 역이 “penance를 행하고 복음을 믿으라(Do penance (*paenitemini*) et credite evangelio)”로 번역한 막 1:15절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신에 에라스무스는 ‘μετάνοια’를 “회개하라(*resipiscimini*)”<sup>3</sup>로 번역했다. 그는 회개를 나타내는 구약의 ‘שוב, נחם’과 신약의 ‘μετάνοια’ 모두 마음과 의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칼빈은 중세의 용어인 라틴어 ‘*poenitentia agite*’(Penance를 행하다)를 버리고, 대신 사람이 새롭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희랍어 ‘μετάνοια’와 ‘ἐπιστρέφειν’을 즐겨 사용했다<sup>4</sup>. 그는 ‘ἐπιστρέφειν’과 ‘μετανοεῖν’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이중의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회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인간에 의한 죄로부터의 ‘분리’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로 ‘덧붙여짐’(attachment)이었다.<sup>5</sup>

그러므로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개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성경적 회개론의 왜곡이고, 로마 교회의 *paenitentia*나 *conversione*는 회개를 외적인 것이 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sup>6</sup> 그의 이러한 입장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μετάνοια의 의미에 대한 재고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회개는 ‘돌아섬’ 또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란, 옛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며,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삶으로 구성된 하나님께로의 참된 삶의 전환이라고 정의하였다.<sup>7</sup> 즉 그는

<sup>3</sup> Pete Wilcox, “Conversion in the Thought and Experience of John Calvin,” *ANVIL* 14, no. 2 (1997): 117. Calvin, *Comm. Mk* 1:15. *resipiscencia*는 *poenitentia*와는 달리 마음의 변화(Change of mind or heart, recover one’s senses)에 무게를 둔다. *Resipiscere*는 동사 *saper*(to think, discern, or be wise)와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起動의 어간(the inchoative stem)인 -sc와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암시하는 접두사 re-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로는 “다시 지혜롭게 되다” 혹은 “바른 상태로 가다”의 의미이다. Cf. D. P. Simpson (ed), *Cassell’s New Latin Dictionary* (New York, 1968).

<sup>4</sup> *Comm. Acts*. 2:38.

<sup>5</sup> Ganoczy, 243.

<sup>6</sup> See *Comm. Acts*. 2:38.

“converti”, “reverti ad Dominum”, “resipiscere”를 회개를 위한 새로운 정의로 사용했다.<sup>8</sup> 실제로 칼빈은 계속적으로 회개(repentance, *repentir*, amendment, *s'amender*)를 내적인 변화와 삶의 전체적인 전향을 의미하는 ‘μετάνοια’의 신약 성경 본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sup>9</sup>

그리고 베자 역시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을 통해 그가 끈질기게 ‘μετάνοια’를 ‘*resipiscentia*’로 그리고 ‘μετανοεῖν’은 ‘*resipiscere*’로 번역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쥐리히와 제네바의 번역가들과 디오다티(Diodati)와 카스탈리오(Castalio) 같은 개인 번역가들이 모두 그들의 각각의 언어에서 ‘μετάνοια’가 Vulgate 역의 ‘*paenitentia*’의 의미로 번역되는 것을 피했다.<sup>10</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칼빈에게 있어 회개(repentance)는 ‘내적인 변화와 삶의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회개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개인의 악에 대한 경험과 믿음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루터에게 있어 하나님께로 인간이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아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회개”는 오직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다.<sup>11</sup> 루터는 회개론에서 에라스무스적 자유의지를 비판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 대신에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점에 있어,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이중적 요소를 가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네게로 돌아가리라(슥 1:3)”를 좋아했고 그리고 이 원리가 회개 속에

<sup>7</sup>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3. 3. 5. Hereafter, *Inst.*

<sup>8</sup> *Inst.*, 3. 3. 5.

<sup>9</sup> CO, XXIX, Col. 366; XLVII, Col. 462; XLV, Col. 747; XXX, Col. 109; and XXVII where he uses the text of the Geneva Translation, edition of 1546 and gives the variants of other editions of the text, and of his commentary in the footnote.

<sup>10</sup> Beza writes as follows in his note to Mt 3:2: “*Ceterum quum est verbum absolutum, proprie significat Post factum sapere, & de errore admissio ita dolere ut corrigas: quod Latinis proprie significat Resipiscere.*” *Testamentum Novum* with the annotations, fourth edition, 1588, 10.

<sup>11</sup> Ganoczy, 244.

서 성령에 의해 성취된다고 믿었다.<sup>12</sup>

기독교 강요 3권 3장의 제목에 따르면, 칼빈은 중생과 회개를 하나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중생이기도 하다.<sup>14</sup> 또한 회심이 곧 회개이다.<sup>15</sup> 현대적인 의미로는 중생과 회심이 회개와 분리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회심과 중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sup>16</sup> 칼빈은 회심과 내적 변화 즉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중생”<sup>17</sup>을 같은 선상에 둔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회개를 진실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새 생명의 씨를 가지게 되는 중생으로서의 회개로 취급했던 것이다.<sup>18</sup>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외적인 면과 그 열매에 주의하지만, 기본적으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기에<sup>19</sup> 칼빈은 회개를 “마음 전체를 주님께 두며, 의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고 정의한다.<sup>20</sup> 그러므로 회개를 육체의 죽음과 영의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며,<sup>21</sup> 특히 육체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된 성품을 버리며, 우리 자신의 이전의 생각과 삶의 방향에 대한 부정을 요구한다.<sup>22</sup>

<sup>12</sup> M. Luther, *Werke* (Weimar, 1883ff.), 13: 551.

<sup>13</sup> *Inst.*, 3. 3. 제목.

<sup>14</sup> *Inst.*, 3. 3. 9.

<sup>15</sup> *Inst.*, 3. 3. 21.

<sup>16</sup> Ganoczy, 245-46.

<sup>17</sup> *Comm. Lam.* 5:21, *Comm. Mal.* 5:21.

<sup>18</sup> *Comm. Lam.* 5:21, *Comm. Mal.* 5:21.

<sup>19</sup> *Comm. Ezek.* 18:30.

<sup>20</sup> *Inst.*, 3. 3. 17.

<sup>21</sup> 양자는 모두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발생한다. *Inst.* 3.3.9

“*paenitentiae nomen hebraeis a conversione, graecis a mentis consiliique mutatione deductum est. Nec utrique etymologicae res ipsa male respondit; cuius summa est, ut a nonis demigrantes ad Deum convertamur, et deposita pristina menta novan induamus. Quamobrem non male eo quidem iudicio, sic paenitentia definiri poterit; esse veram ad Deum vitae nostrae conversionem, a sincero serioque Dei timore projectam, quae carnis nostrae veterisque hominis mortificatione et spiritus vivificatione constet.*”

<sup>22</sup> *Inst.*, 3. 3. 8.

칼빈은 칭의가 목적의 변화인 반면 회개는 성향의 변화라고 정의했다. 즉 회개는 새로운 삶을 목적으로 하고, 칭의는 하나님과의 값없는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sup>23</sup> 회개의 성향은 과정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삶의 새로움이지만, 칭의의 목적은 단회적인 하나님과의 값없는 화해이다. 그는 또한 회개를 회심, 삶의 새로움, 재생, 성화라 부르며, 죄의 용서를 값없는 화해, 칭의,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회개와 죄 용서를 병렬시킨다. 그러므로, 회개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속 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전체와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불릴만하다.<sup>24</sup>

## 1.2. 개혁신주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회개의 중요성

비록 칼빈은 회개에 대한 연구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sup>25</sup> 개혁신주의적 회개론을 연구하고 정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개혁신자들과 그 후예들의 주요 관심사가 믿음과 관련된 이신칭의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개혁신주의 학자들 간에도 회개의 중요성에 관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sup>26</sup> 그 결과 개혁신주의 신학에서 회개의 가치가 결코 높지 않게 평가되지 않아왔다. 그러므로 바른 개혁신주의적인 회개론을 위해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의 회개의 중요성과 구원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의 강조가 ‘이신칭의’라는 구원론의 핵심 진리와 결코 모순되지 않고 긴밀히 관계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회개론은 터툴리안<sup>27</sup>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 교회에 이르기까지 율법

<sup>23</sup> *Inst.*, 3. 3. 1.

<sup>24</sup> John Calvin,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Tract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II, ed., T. F. Torrance (Edinburgh: Oliver & Boyd, 1958), 55-56.

<sup>25</sup> *Inst.*, 3. 4. 1.

<sup>26</sup> 참고를 위해 Myung-suk Shim, “The Doctrine of Repentance in Reformed Perspective: Calvin, Barth, Berkouwer and Hyung Nyong Park” (Ph. D. diss., University of Pretoria, 2006)을 보라.

<sup>27</sup> 2세기에 터툴리안은 히브리서 6:4-6을 들어 두 번째 회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의와 고해성사 교리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 베르카우어(G. C. Berkouwer)는 이러한 ‘고해성사-율법주의’(penance-nomism)가 회개와 은혜로 말미암는 바른 구원의 문제를 좀먹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sup>28</sup>

개혁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참된 회개의 회복으로 삼았다.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Die 95 Thesen)’의 중요한 관심이 진정한 회개의 회복이었고, 그의 ‘95개조 반박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의미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된다.<sup>29</sup> 이것은 종교개혁이 “회개(μετάνοια)”와 “Penance”의 의미에 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0</sup> 그는 로마 교회에 의해 시행되는 고해성사(sacrament of penance)교리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의 토대 위에서만 오직 믿음(*sola fide*)의 교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는 참된 회개의 회복이 ‘이신칭의’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루터는 그의 첫 번째 논문에서 이 문제를 중심주제로 다루었다.<sup>31</sup> 쾰링글리 역시 루터의 중심적 원리, 즉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중심개념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sup>32</sup> 칼빈도 “회개와 죄 사함이 복음의 전체”이며,<sup>33</sup> “회개와 중생이 없는

---

또한 그는 타락한 자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엄격주의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통한 신적 용서의 가능성 만은 인정하였다. G. C. Berkouwer, *Faith and Perseverance* tr. Robert D. Knudsen (Grand Rapids: Eerdmans, 1979), 119.

<sup>28</sup> G. C. Berkouwer, *Faith and Justific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55), 180.

<sup>29</sup> Henry Bettenson, ed.,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185-91. Latin, Art. 1. “*Dominus et magister noster Iesus Christus dicendo ‘Penitentiam (Matt. 4, 17) agite &c.’ omnem vitam fidelium penitentiam esse voluit.* German, Art. 1. *Da unser Herr und Meister Jesus Christus spricht: Tut Busse usw.(Matt. 4, 17), hat er gewollt, dass alles Leben der Gläubigen Busse sein soll.*”

<sup>30</sup> David C. Steinmetz, “Reformation and Conversion,” *Theology Today* 35 (1978-79): 25; Anthony N. S. Lane, *Justification by Faith in Catholic Protestant Dialogue: An Evangelical Assessment*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2), 100-107.

<sup>31</sup> Steinmetz, “Reformation and Conversion,” 2.

<sup>32</sup> Karl Barth, *The Theology of John Calvin*, tr.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 Cambridge, U. K. : Wm B. Eerdmans, 1995), 100.

<sup>33</sup> *Inst.*, 3. 3. 1. Repentance is a very important idea in salvation. One can see that Calvin’s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다”<sup>34</sup>라고 했다. 따라서 칼빈은 믿음에 대한 논의에서 이 두 가지 즉 ‘회개와 믿음’을 빠뜨린다면, “효과도 없고 불완전하고 무용하다”<sup>35</sup>라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참된 회개의 회복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었다.<sup>36</sup> 또한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하여 18세기의 복음주의적 대 부흥운동을 관통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회심’이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강단의 주요 메시지로 선포해왔다.<sup>37</sup>

이처럼 교회의 주요 메시지였고, 칼빈이 회개를 죄 용서와 더불어 ‘복음의 전체’라고 불렀지만, 종교개혁 이래로 개혁신주의 신학에서<sup>38</sup> 회개는 구원론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정당하지 못한 취급을 받아왔고, 믿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으로 취급되어왔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객관적인 요소로 취급되어온 반면, 회개는 가장 주관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왔다. 개혁교회가 칭의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교리를 강조해 왔기에, 회개는 기독교 종교의 윤리적 요소로만 취급되었고, 회개를 구원의 필수적 요소로 취급하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혁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로 제시하는,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른 성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권징의 각 요소의 전제적(前提的) 요소로서 회개를 요구한다. 그러

---

thought was based on the two pillars that are repentance and the forgiveness of sins, because Calvin believes that the Gospel consists of repentance and the forgiveness of sins. J, *Comm. Mt* 3:2.

<sup>34</sup> Philip Schaff, ed.,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467-71; Art. 29 of Geneva Catechism (1537), in *Theological Treatis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ed. by J. K. S. Rei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88-139.

<sup>35</sup> *Inst.*, 3. 3. 1.

<sup>36</sup> Wilcox, “Conversion in the Thought and Experience of John Calvin,” 116.

<sup>37</sup> Steinmetz, “Reformation and Conversion,” 25.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부흥주의 시대의 회개 개념 (*technicus terminus*)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sup>38</sup>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 Harold Knight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11-12: “... the whole edifice of Calvinistic theology rests upon a certain fundamental principle, This principle is certainly not anything formal but is something lived out in the depths of the soul: the honour of God.”

나 오늘날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만이 교회의 표지를 위한 전제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회개와 이신칭의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신칭의가 회개의 역할과 위치를 압도함으로 인해, 복음은 중심성을 잃었다. 성경에서 믿음과 회개는 나란히 선다. 전자는 후자로부터 자라고, 후자는 전자로부터 온다. 그리고 참된 회개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그 둘은 구원론에 있어 분리되지도, 해소되지도 않기 때문이며, 그 둘이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회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회개가 교회부흥과 영적 각성의 기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sup>39</sup> 왜냐하면, 바른 회개의 의미에 관한 논쟁에서 개혁교회가 생겨났고 바른 회개론을 세우는 것이 개혁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실 때, 그는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고, 그의 의를 의지하며, 주의 명령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본성의 근본적인 타락이 단지 중생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허물을 제거해야만 한다(고전 6:9-10; 갈 5:21).<sup>40</sup>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고, 구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시 7:12; 눅 13:3, 5).

한국 교회의 회개론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국 교회에 있어 회개 운동은 주로 금요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회들은 개인적인 회개보다는 집단적인 회개에 집중되고, 삶을 바꾸는 변화의 회개보다는 눈물로 호소하고 감정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통한 완전한 삶의 변화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sup>39</sup> Steinmetz, “Reformation and Conversion,” 25-26.

<sup>40</sup>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126.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흥주의와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회개를 죄 용서와 관계된 주관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입술의 고백을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는 단순히 주관적인 변화와 입술에 의한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전체 인간의 변화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사람과 생각을 바꾸실 뿐 아니라, 인간 전체를 바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죄의 회개를 통해, 인간은 선한 생각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선한 일을 행한다. 참된 회개는 선행에 앞서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회개 속에서 선행을 행하게 된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객관주의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주관주의를 모두 견지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회개를 통해 택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sup>41</sup> 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며,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죄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우시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깨끗이 못하기 때문이다.<sup>42</sup>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죄 된 삶에 대한 반동을 일으키는 사건이다.<sup>43</sup>

### 1.3.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회개의 필요성

칼빈은 그의 작품을 거대한 철학사의 맥락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관계적 실제적 맥락에서 보았다.<sup>44</sup> 그래서 칼빈의 신학에 있어 회개론 역

<sup>41</sup> Wilcox, "Conversion in the Thought and Experience of John Calvin," 113.

<sup>42</sup> *Inst.*, 3. 3. 11.

<sup>43</sup>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126.

<sup>44</sup> Barth,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2.

시 실제적 문제를 풀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칼빈의 신학은 인간과 교회를 교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지 존재나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sup>45</sup>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한다는 것은 신학적 가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 회복이다. 비록 칼빈이 논리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논리적 사유 속에서 회개론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칼빈은 그의 회개론 속에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논리와 사색을 거부하기 때문이다.<sup>46</sup> 그는 기독교인의 생활(Praxis) 속에 회개론을 위치시켰다. 칼빈은 일상적인 인간 경험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 삶의 구체적 실재를 다루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신학은 매우 특별한 인간 경험과 관계된 구체적 인간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sup>47</sup>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에 있어, 회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문제이다. 그의 회개론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종교 생활에 나타나는 실제의 하나이다.<sup>48</sup> 게다가 하나님의 지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이다. 즉 우리의 신뢰, 순종,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아래 사는 삶에 관한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삼중 정의(*aedificatio, fructio, utilitas*)<sup>49</sup>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죄 용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분명히 알게 된다”<sup>50</sup>고 믿었다. 또한 우리가 만일 이것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양심의 평안

<sup>45</sup> John Leith, “Calvin’s Theological Realism,” in *Toward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ed. David Willis & Michael Welker (Grand Rapids / Cambridge, U.K.: WM. B. Eerdmans, 1999), 344.

<sup>46</sup> Leith, “Calvin’s Theological Realism,” 340.

<sup>47</sup> Leith, “Calvin’s Theological Realism,” 343.

<sup>48</sup> John Calvin, *Form of Prayer for the Church: Tract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II, ed., T. F. Torrance (Edinburgh: Oliver & Boyd, 1958), 100.

<sup>49</sup> Hans J. Kraus,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Calvin’s Theology,” in *Toward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ed., David Willis & Michael Welker (Grand Rapids / Cambridge, U.K.: WM. B. Eerdmans, 1999), 327.

<sup>50</sup> *Inst.*, 3. 4. 2.

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sup>51</sup> 따라서, 참된 회개는 양심에 안식을 주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는 것이다.<sup>52</sup>

그러므로 칼빈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보았다. 회개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므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sup>53</sup>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결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결과이다. 따라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이고, 죄의 용서는 안전의 원인이 된다.<sup>54</sup> 그러므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분리하는 일은 복음의 왜곡이다.<sup>55</sup> 그러나 인간은 회개 없이 죄의 용서를 결코 맞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가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니고, 주님의 자비가 죄 용서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는 인간의 회개 없이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sup>56</sup>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주시고 그 회개를 하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신다.<sup>57</sup> 그러므로 회개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할 때에만 가치가 있고 참 회개인 것이다. 물론 칼빈이 회개의 열매 자체를 구원의 증거로 보지는 않았지만,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실천적 삼단논법(*practicus syllogismus*)<sup>58</sup>을 가지고 역설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은 죄인을 그에게로 회개시키시는 것이며,<sup>59</sup> 회개는 죄인들을 위한 부성적 초청이다.<sup>60</sup> 이 부성적 초청의 관계 때문에

<sup>51</sup> *Inst.*, 3. 4. 2.

<sup>52</sup> *Inst.*, 3. 4. 2.

<sup>53</sup> *Comm.* 2 Cor. 7:10.

<sup>54</sup> *Comm.* Eph. 4:22.

<sup>55</sup> *Comm.* Acts. 26:19-20.

<sup>56</sup> *Inst.*, 3. 4. 3.

<sup>57</sup> *Inst.*, 3. 17. 3-5. 칼빈은 *duplex acceptio hominis*'와 '*operum iustitia*를 가지고 이를 논증한다.

<sup>58</sup> Joel R. Beeke, *Assurance of Faith: Calvin, English Puritanism, and the Dutch Second Reformation* (New York / San Francisco / Bern / Frankfurt am Main / Paris / London: Peter Lang, 1991), 72.

<sup>59</sup> *Comm.* Rom. 2:4.

<sup>60</sup> *Comm.* Rom. 2:4.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선하심을 전제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초대하다(invite)”라는 말보다는 “이끄신다(leads)”는 말을 선호했고, 그는 회개를 “몰아간다(driving)”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해 “이끄신다(leading)”는 개념으로 보았다.<sup>61</sup> 이것은 비록 칼빈에게 있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죄인의 자발적인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이다.<sup>62</sup> 그래서 그는 성화라는 말보다 회개라는 말을 더 선호했다.<sup>63</sup> 하나님은 회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며<sup>64</sup> 회개하지 않음은 주님의 권고를 거부함이고 주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다.<sup>65</sup> 따라서 회개하지 않음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쌓은 일인 것이다.<sup>66</sup> 그러므로 회개를 택자에게 주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sup>67</sup> 그 결과 전도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동시에 신실한자들을 겸손하게 한다.<sup>68</sup> 여전히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차원 중의 하나이다.<sup>69</sup>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신다.<sup>70</sup> 그

---

<sup>61</sup> *Comm. Rom.* 2:4.

<sup>62</sup> *Comm. Acts.* 2:38.

<sup>63</sup> *Comm. Rom.* 2:5.

<sup>64</sup> *Comm. Rom.* 2:5.

<sup>65</sup> *Comm. Rom.* 2:5. What follows in the text, according to Calvin, is this, “*et Corinthians poenitere nescium*—and a heart that knows not to repent; “ἀμετανόητον καρδίαν θησαυρίζεις σεαντῶ ὀργήν ἐν ἡμέρᾳ ὀργῆς”, which Schleusner renders thus, “*animus, qui omnem emendationem respuit*—a mind which rejects every improvement.” It is “an impenitent” rather than “an impenitent heart”, that is, a heart incapable of repenting.

<sup>66</sup> *Comm. Rom.* 2:5.

<sup>67</sup> Barth, *The Theology of John Calvin*, 117-18: “This is the heart of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Briefly, those who are obedient should never forget for a moment that they are not the recipients of grace because they are obedient, but obedient because they are the recipients of grace.”

<sup>68</sup> L. 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D. Rs. Diss., University of Strasbourg, 1968 (Potchefstroom: Pro Rege-Press, 1971), 117.

<sup>69</sup> John Witvliet, “Baptism as a Sacrament of Reconciliation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Studia Liturgica* 27/2 (1997): 152.

러므로 회개는 부르심의 수단이며, 이것이 없이는 자연스럽게 선행조건으로서의 선택은 없는 것이다.<sup>71</sup> 칼빈은 회개가 선택 받은 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한다.<sup>72</sup>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딤후 2:4),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은혜의 보편성에 대한 피기우스(Pighius)의 주장에 반대하여, 칼빈은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백성을 회개로 이끄신다(겔 18:23; 33:11)고 했다.<sup>73</sup> 칼빈의 회개론 속에서는 은혜의 보편성과 조건적 구원이 모순이 아닌 것이다.<sup>74</sup>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 위협과 약속은 함께 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찾으시는 곳이면 그분께서는 약속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은 그분의 숨겨진 경륜 속에서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회개시키기로 결정하시고 복음과 성령을 통해 그를 회개로 이끄시기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순이 아니다.<sup>75</sup>

노만 가이슬러(Norman Geisler)는 회개의 첫 번째 순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과 거기에 어떠한 인간의 협력도 없다고 말하는 칼빈주의 자들을 일방주의(monergism)라고 비난했다.<sup>76</sup> 그러나 원칙적으로 칼빈의 회개론은 노만 가이슬러가 비판한 극단적 칼빈주의의 회개론과 완전히 일치한다. 칼빈에 따르면 회개와 회심은 비록 그것이 때때

<sup>70</sup> *Inst.*, 3. 3. 15.

<sup>71</sup> *Inst.*, 2. 3. 11.

<sup>72</sup> J. Calvin, "Second Defense of the Sacraments," in *Answer to the Calumnies of Westphal: Tract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II, ed., T. F. Torrance (Edinburgh: Oliver & Boyd, 1958), 337.

<sup>73</sup>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105.

<sup>74</sup> *Comm. Ezek.* 18:23; *Comm. Ezek.* 33:11.

<sup>75</sup>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105.

<sup>76</sup> Norman Geisler, *Chosen But Free, A Balanced View of Divine Election*, 2nd edition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2001), 241.

로 신인 협동적(synergism)으로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다. 실제로 이것은 신인 협동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만의 사역인 것이다. 바르트는 칼빈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개가 죄 사함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sup>77</sup> 그러나 반대로 칼빈은 반복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78</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시지만 회개의 창조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sup>79</sup> 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려진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구원론에서 믿음과 회개, 양자 모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회개는 믿음을 통해 발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포함한다(행 11:21). ‘ἐπιστρέφω’는 믿음을 포함하고 ‘μετανοῶ’와 ‘πιστεύω’는 함께 하며 상보적 관계이다. ‘μετάνοια’는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며 ‘μετάνοια’의 결과는 한 번이 되 완전한 죄의 용서이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 믿음의 요소들이 바로 참된 회개의 요소 그 자체이므로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이다.<sup>80</sup>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는 구원에 있어 회개와 믿음, 양자의 중요성을 모두 인정한다.<sup>81</sup> 죄의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회개의 중요성이 등한시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에게 있어 회개는 필수적이고 회개 없는 용서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며”<sup>82</sup> 회개는 “지상에 사는 믿는 자들의 삶의

<sup>77</sup> Barth, *The Theology of John Calvin*, 190-91.

<sup>78</sup> *Comm.* 2 Tim. 2:25.

<sup>79</sup> *Comm.* 2 Tim. 2:25.

<sup>80</sup> A. A. Hodge, *Outlines of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860; reprinted, 1991), 487.

<sup>81</su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I, 629-33.

<sup>82</su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I, 631-33.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시 19:12, 13; 눅 9:23; 갈 6; 14; 5:24).<sup>83</sup>

## 2.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주의자들은 (여기서는 주로 칼빈만을 다루었지만) 구원론에서 회개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로마교회와는 다른 의미로 회개를 다루고 싶어했고, 회개의 외적인 차원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회개의 주요 관심을 마음과 성향의 변화와 평생을 두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취급했다. 또 이신칭의에 비해 그 가치를 낮게 취급하지도 않았고, 참된 회개론이 참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들이 회개와 이신칭의가 하나의 복음이고, 회개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촉발시키고 믿음의 강화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요건이며,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실한 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개를 단지 죄의 고백 차원으로만 다루거나 입술의 고백 정도의 의미만을 부여한다면, 개혁주의적 구원론은 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회개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죄의 용서에 있어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의 역할을 약화시킨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신칭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회개를 약화시켰다.

참된 회개는 선편적이지도, 법정적이지도, 인간의 사색의 결과도 아니다. 또 그것은 단지 주관적이거나 혹 단지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율법주의적이거나 신인협동의 결과도 아니다. 회개는 인간의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주도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sup>83</sup> Hodge, *Outlines of Theology*, 489.

의 은혜의 산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인간은 회개의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의도 공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회개론에 있어서 주관성과 객관성,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행함,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진정으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표이기에 ‘이신칭의’와 더불어 복음의 핵심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회개가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적절한 역할과 위치를 확보할 때, ‘이신칭의’는 인간의 사색이나 신앙지상주의로 오해되지 않을 것이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참된 복음의 핵심의 자리를 보다 확고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Barth, Karl. *The Theology of John Calvin*.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5.
- Berkouwer, Gerrit C. *Faith and Perseve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58.
- Beeke, Joel R. *Assurance of Faith: Calvin, English Puritanism, and the Dutch second Reformation*. New York, San Francisco, Bern, Frankfurt am Main, Paris, London: Peter Lang, 1991.
- Bettenson, Henry. (Ed.)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Beza, T. *Testamentum Novum*. 1588.
- Calvin, John.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53.
- \_\_\_\_\_. *Tract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II.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Edinburgh: Oliver & Boyd, 1958.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ited by D. W. Torrance and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2.
-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XI, XXII. Translated by Ford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Calvini Opera*. XXIX; XLVII; XLV; XXX; XXVII.
- Erasmus, D. *Opera Omnia*. VI.
-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Trans. 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 Geisler, Norman L. *Chosen But Free: A Balanced View of Divine Election*. 2nd edition. Minneapolis, Minnesota: Bethany House Publishers, 2001.

- Hodge, A. A. *Outlines of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first printed 1860; reprinted 1991.
- Kraus, Hans J.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Calvin’s Theology.” In *Toward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Eds.) David Willis & Michael Welker. Grand Rapids / Cambridge, U.K.: Eerdmans, 1999.
- Lane, Tony. *Justification by Faith in Catholic Protestant Dialogue: An Evangelical Assessment*.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2.
- Leith, John. “Calvin’s Theological Realism.” In *Toward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Eds.) David Willis & Michael Welker. Grand Rapids / Cambridge, U.K.: Eerdmans, 1999.
- Luther, M. *Werke*. XIII. Weimar, 1883.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Reid, J. K. S. (Ed.) *Theological Treatis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Schaff, Philip. (Ed.) *The Creed of Christendom*. Vol. I, III.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 Schulze, L. F. *Calvin’s Reply to Pighius*. (D. Rs. Diss., University of Strasbourg, 1968). Potchefstroom: Pro Rege-Press, 1971.
- Shim, Myung-suk. “*The Doctrine of Repentance in Reformed perspective: Calvin, Barth, Berkouwer and Hyng Nyong Park*.”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retoria, 2006.
- Steinmetz, David C. “Reformation and Conversion.” *Theology Today* 35 (1978-79): 25-32.
- Wilcox, Pete. “Conversion in the Thought and Experience of John Calvin.” *Anvil* 14/2 (1997): 113-28.
- Witvliet, John. “Baptism as a Sacrament of Reconciliation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Studia Liturgica* 27 / 2 (1997): 152-65.

*Abstract*

##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pentance in Calvin's Soteriology

Shim, Myung-Suk

The doctrine of repentance of John Calvin has an important position with 'justification by faith' in his soteriology. Repentance, first of all, starts in the inward change of believers and produces the external fruits. And although repentance is happened in the human being, it is the event that is initiated by God. Repentance not only has the worth of the one in the *ordo salutis*, but also it strengthens 'th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and actualizes the objective aspect in the *ordo salutis*. 'The forgiveness of sins' by repentance, therefore, is an important essence of gospel of God that ought to be proclaimed as well as 'justification by faith.' And repentance is necessary to salv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sign of our salvation by Christ Jesus.

The true repentance is not a proclamatory, neither forensic, nor the production of human speculation. And it is not just subjective, neither just objective, nor the result of legalistic or synergic works. It has the both of them. This is a production of grace of God; by the grace of God believers have a chance of repentance. So it becomes neither the righteousness of believers nor merit of man. It is an obedience and gratefulness to God in soteriology.

**Key-Words:** Repentance, Conversion, Penance, Penitence, Confession, Good Works